

치위생과 학생들의 직업관에 관한 연구

이선미[†] · 김송전¹ · 한수진²

동남보건대학 치위생과

¹명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

²가천길대학 치위생과

A Study of Work Values on the Students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Sun-Mi Lee,[†] Seong-Chon Kim¹ and Su-jin Han²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ongnam Health College, Suwon-Si, Gyeonggi-do 440-714, Korea

¹Department of Food & Nutrition, Myongji University, Yongin-Si, Gyeonggi-do 449-728, Korea

²Department of Dental Hygiene, Gachon Gil Collge, Incheon Metropolitan City 406-799,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lve into the work values of dental hygiene student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465 students who attended three different colleges in Gyeonggi province. After a survey was conduct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WIN 12.0 program.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As for the type of work values, the largest group of the students investigated attached importance to pay and reputation, as they gave a mean of 4.18 to those things. In detail, they put the most emphasis on economic compensation since they gave it a mean of 4.42. (2) Regarding their detailed outlook, there was significantly strong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ir view of achievement and of competency, between their view of economic compensation and of position, and between their view of recognition and of position. (3) As to the impacts of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their work values in pursuit of self-realiz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motivation of choosing dental hygiene(P = .042). Their school(P = .011), academic school year(P = .023), actual work experience as a dental hygienist(P = .045) and motivation of choosing dental hygiene (P = .023) mad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o their contribution- oriented view of occupation. And their work values that accentuated pay and reputation vari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with their school(P = .000) and academic school year(P = .000).

Key words Work values

서 론

현대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업은 우리 생명과 생활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필요요소이고 인간의 행복에 필수 불가분의 요소로써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직업은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써 모든 직업인이 각기 맡은 직무를 성실하게 그리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때 사회는 발전하는 것이며, 동시에 직업인 각자도 보람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개인의 행복은 직업생활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며 또한 사회발전이라는 것도 사회구성원의 직업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겠다¹⁾.

직업을 가짐으로써 자아실현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그가 속해 있는 사회와 국가에 공헌하게 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 및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함

으로써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여 응분의 지위와 보람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의 직업을 귀한 사명적 직분으로 삼고, 책임과 신념으로 정성과 정열을 쏟게 마련이며, 직업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²⁾.

직업 세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지식기반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은 하나의 현실이며, 이에 대비하여 각 개별 사회 주체들이 이러한 변화들을 포용하고 스스로의 혁신 능력을 배양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직업과 근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의 직업인이 될 대학생은 직업과 관련한 자아개발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사실 자아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없이 기존에 배운 학습능력과 단순 기능만을 가지고 경쟁하기에는 모든 것이 역부족한 사회가 되었다. 성공한 직업인, 즉 풍요로운 자기의 정원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의 생애진로계획을 단계별로 철저히 세우고, 이를 꾸준히 노력하여 실천하는 사람이다³⁾.

직업관이란 개인이 직업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Corresponding author
Tel: 031-249-6505
Fax: 031-249-6500
E-mail: LSM712002@dongnam.ac.kr

이들을 어떤 관념으로 대하는가, 또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고,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선호하는가 하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학자들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특정 직업이 아닌 일반화된 개념으로서의 직업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⁴⁾.

한 개인의 직업관에에는 그 사회의 전통적인 문화, 습관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러한 직업관을 통해 개인은 직업을 결정할 때 '자기를 알고, 무엇을 중요시하며, 누구의 영향을 받아 어떻게 무엇을 한다' 하는 마음을 정립하게 된다⁵⁾.

치위생교육의 목적은 21세기에 대비한 전문직 치과위생사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전문 직업인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소유한 구강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전문직으로서 역동적이고 변화해가는 사회에 적응 내지 지도할 수 있는 능력있는 치과위생사로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치위생학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시킴으로서 의미있고 행복한 삶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학교에서의 올바른 직업관을 갖게끔 하는 교육일 것이다.

이에 치위생과 학생들의 직업관을 조사하여 그 특성을 규명,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치과위생사라는 전문직에 대한 직업관 정립과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경기 지역에 위치한 3개 대학의 치위생과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자료처리에 부적합한 35부를 제외한 465부를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2. 연구도구

치위생과 학생의 직업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이⁶⁾가 이용한 도구를 수정·사용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 7문항, 자아실현 지향적 직업관 7문항, 기여 지향적 직업관 4문항, 보수와 명성 지향적 직업관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41$ 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WIN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2) 연구변수에 대한 점수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직업유형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각 직업유형간의 차이는 T-Test 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일반적 특성

3개 대학 치위생과 신입생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

Table 1. Distributi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Values	Person (%)
School	A	174(37.4)
	B	149(32.0)
	C	142(30.5)
Grade	First	242(52.0)
	Second	84(18.1)
	Third	139(29.9)
DH existence	yes	42(9.0)
	no	423(91.0)
Expect Work	Dental clinic	56(12.0)
	General hospital	153(32.9)
	Dental hospital	145(31.2)
	Public Health centers	67(14.4)
	Others	44(9.5)
Choice Motive	get a job ease	261(56.1)
	a job appropriate to aptitude	42(9.0)
	special subject	26(5.6)
	the results of an exam	22(4.7)
	invitation of persons	95(20.4)
	information of books and material	19(4.1)
Working Period	till marriage	19(4.1)
	continuation	422(90.8)
	rework	24(5.2)
Foreign	instant	121(26.0)
Advance an	after career	132(28.4)
Intention	judge from the existing state	198(42.6)
	no	14(3.0)
total		465(100.0)

과 같다.

학교분포는 A학교(37.4%), B학교(32.0%), C학교(30.5%)로 나타났고, 학년별 분포는 1학년이 52.0%로 가장 높았고, 3학년 29.9%, 2학년 18.1%순이었다. 가족 및 친지 중 치과위생사 유무는 있는 경우가 9.0%로 낮은 빈도를 보였다. 졸업 후 취업 희망근무처를 보면 종합병원이 32.9%로 가장 높았고, 치과병원 31.2%, 보건소 14.4%, 개인치과 12.0%, 기타 9.5%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희망 기관으로 보건소가 가장 높았던 신⁷⁾, 이⁸⁾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정 등⁹⁾의 연구 결과와는 유사하였다. 보건소가 취업희망기관으로 낮은 이유는 보건소의 치과위생사 인력에 대한 충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사료되며, 치과의원에 대한 기피현상은 치과의원이 가지는 급여체계 및 복지제도 신분보장 등에 대한 기관과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지만 대다수 치위생과 졸업생이 치과의원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과의원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갖도록 지도함이 필요하겠다.

치위생과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취직이 용이해서'가 56.1%로 가장 높았고, '주변사람의 권유' 20.4%, '적성에 맞는 것 같아' 9.0%, '전공의 독특성 때문에' 5.6%, '수능성적을 고려해서' 4.7%, '서적 및 홍보자료' 4.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⁶⁾, 정 등⁹⁾, 조¹⁰⁾의 연구결과에서도 치위생과 학생들의 학과 선택이유로 높은 취업률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것과 유사하며,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과선택에 있어 취업률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라 하겠다.

졸업 후 취업희망기간으로 결혼 후에도 계속 일을 하겠다고 한 경우가 90.8%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고, 결혼 후 재취업의 기회를 갖겠다고 한 경우 5.2%, 결혼할 때까지만 4.1%로 대부분 직업을 계속유지 하고자 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졸업 후 해외진출 기회시 '상황에 따라 결정' 42.6%, '경력을 쌓은 후 가겠다' 28.4%, '즉시 가겠다' 26.0%, '가지 않겠다' 3.0%순으로 나타나 해외 진출의 의사가 어느 정도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앞으로 우리나라 치위생계가 해외취업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됨을 시사한다.

2. 연구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

직업이 인간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직업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실현 지향적 직업관에 성취, 직업흥미를, 기여 지향적 직업관에 사회기여를, 보수와 명성 지향적 직업관에 경제적 보상, 지위, 능력, 인정 항목을 포함시켰다

자아실현 지향적 직업관은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보는 견해로 여기에서의 직업은 자신의 생계만을 위한 것도 남을 위해서도 아니다. 오직 그 자체를 위해 일하는 직업을 의미한다. 자아실현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개성과 취미를 실현시키는 것으로 직업에 대한 성취도 포함된다.

기여 지향적 직업관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넘어선 어떤 누군가를 위한 봉사의 의미를 지닌 직업을 갖는 것이다. 이 직업관은 자기의 필요성이나 가족의 이익을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삼는다. 즉 국가에 대한 봉사가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하여 모든 사람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과 번영에 공헌함으로써 찾는 보람을 말한다

보수와 명성 지향적 직업관은 직업이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며 입신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것은 가장 통속적인 직업관으로 생업으로서의 직업적 측면을 강조한 직업관이다. 의식주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얻기 위한 활동이나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직업관에 대한 각각의 평균을 살펴보면 자아실현 지향적 직업관 4.04점, 기여 지향적 직업관 3.44점, 보수와 명성 지향적 직업관 4.18점으로 보수와 명성 지향적 직업관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각 직업관에 포함된 각 하부변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자아실현 지향적 직업관 중 성취는 4.11점, 직업흥미는 3.96점, 보수와 명성 지향적 직업관에서는 경제보상 4.42점, 지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

Distribution		M±SD
Realization intention	Achievement	4.11±0.49
	Interest	3.96±0.69
	total	4.04±0.48
Contribution intention	Contribution	3.44±0.62
Reward and Fame intention	Reward	4.42±0.42
	Status	4.03±0.60
	Ability	4.10±0.52
	Recognition	4.16±0.57
	total	4.18±0.39

위 4.03점, 능력 4.10점, 인정 4.16점으로 경제적 보상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2>.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직업관은 보수와 명성 지향적 직업관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박¹⁾의 연구에서 직업을 갖는 최대목적은 일을 통한 자기발전이나 성취감 획득에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뚜렷하다고 보고한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안¹¹⁾의 연구에서 직업가치관 유형 중 보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점과 이⁶⁾의 연구에서 외재적 가치관(지위, 경제적 보상)이 내재적 가치관 보다 높게 나타난 점과는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3. 직업유형간의 상관관계

직업유형간의 상관관계를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사회기여와 경제적 보상과의 관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나머지 변수들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능력과 성취와의 관계에서는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 = 0.592), 지위와 인정, 경제적 보상과 지위도 비교적 높은 순상관관계를 보였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유형간의 차이 분석

1) 자아실현 지향적 직업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실현 지향적 직업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학교별 차이를 살펴보면 C학교 4.10점, B학교 4.02점, A학교 4.00점 순으로 나타났고, 학년별 차이는 3학년인 경우가 4.1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학년이 3.9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

Table 3.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Achievement	Interest	Contribution	Reward	Status	Ability	Recognition
Achievement	1.000						
Interest	0.308**	1.000					
Contribution	0.462**	0.176**	1.000				
Reward	0.186**	0.144**	0.021	1.000			
Status	0.370**	0.177**	0.214**	0.553**	1.000		
Ability	0.592**	0.328**	0.479**	0.166**	0.255**	1.000	
Recognition	0.479**	0.304**	0.267**	0.425**	0.581**	0.378**	1.000

**P < 0.01

Table 4. Realization intention Work Values by personal Variables

Variables	Values	M±SD	t or F	p
School	A	4.00±0.46	1.700	0.184
	B	4.02±0.51		
	C	4.10±0.47		
Grade	First	4.00±0.49	2.938	0.054
	Second	3.99±0.43		
	Third	4.12±0.50		
DH existence	yes	4.05±0.49	0.144	0.885
	no	4.03±0.48		
Expect Work	Dental clinic	4.04±0.49	1.402	0.232
	General hospital	4.06±0.47		
	Dental hospital	3.96±0.51		
	Public Health centers	4.06±0.44		
	Others	4.13±0.48		
Choice Motive	get a job ease	4.00±0.47	2.330	0.042*
	a job appropriate to aptitude	4.25±0.49		
	special subject	4.06±0.41		
	the results of an exam	3.90±0.52		
	invitation of persons	4.06±0.49		
	information of books and material	3.99±0.51		
Working Period	till marriage	3.96±0.44	1.060	0.347
	continuation	4.05±0.47		
	rework	3.91±0.62		
Foreign Advance an Intention	instant	4.04±0.48	0.744	0.526
	after career	3.99±0.50		
	judge from the existing state	4.07±0.48		
	no	3.98±0.34		

*P < 0.05

한 결과는 3학년인 경우에는 취업을 앞둔 시점으로 희망 취업 분야의 직업 활동 자체에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친척 중 치과위생사 유무에 따른 차이에 서는 있는 경우 4.05점, 없는 경우가 4.03점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희망근무처에 있어서는 기타에서 4.13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치과병원인 경우가 3.9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치위생과를 선택한 동기에 있어서는 ‘적성에 맞는 것 같아’ 4.25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주변사람의 권유’, ‘전공의 독특성 때문에’ 각각 4.06점, ‘취직이 용이해서’ 4.00점, ‘서적 및 홍보자료를 통해’ 3.99점, ‘수능성적을 고려해서’ 3.90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치위생과를 선택한 동기가 앞으로의 직업을 갖는데 있어 올바른 직업관을 갖는 데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졸업 후 취업희망기간에서는 결혼 후에도 계속하겠다고 한 경우가 4.05점으로 가장 높았고, 결혼시까지만 3.96점, 결혼 후에 재취업 3.91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해외진출 기회시 본인의 의사에 대한 문항에서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한 경우가 4.07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지 않겠다고 한 경우가 3.98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직업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 경우에는 계속 취업의 유지와 해외 진출의 의사가 많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2) 기여 지향적 직업관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여 지향적 직업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학교별 차이를 살펴보면 C학교 3.56점, B학교 3.41점, A학교 3.36점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학년별로 보면 3학년 3.50점, 1학년 3.46점, 2학년 3.27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친척 중 치과위생사 유무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는 있는 경우 3.60점, 없는 경우가 3.42점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희망근무처에 있어서는 기타에서 3.51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개인치과인 경우가 3.2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치위생과를 선택한 동기에 있어서는 ‘적성에 맞는 것 같아’ 3.6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전공의 독특성 때문에’ 3.64점, ‘주변사람의 권유’ 3.49점, ‘서적 및 홍보자료를 통해’ 3.43점, ‘취직이 용이해서’ 3.38점, ‘수능성적을 고려해서’ 3.23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졸업 후 취업희망기간에서는 ‘결혼 후 재취업’ 3.46점, ‘결혼시까지’ 3.44점, ‘결혼 후에도 계속’ 3.43점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해외진출 기회시 본인의 의사에 대해서는 즉시 가겠다고 한 경우가 3.46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지 않겠다고 한 경우가 3.33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 보수와 명성 지향적 직업관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수와 명성 지향적 직업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학교별 차이를 살펴보면 C학교가 4.27점으로 가장 높았고, A학교가 4.08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Table 5. Contribution intention Work Values by personal Variables

Variables	Values	M±SD	t or F	p
School	A	3.36±0.62	4.521	0.011*
	B	3.41±0.61		
	C	3.56±0.60		
Grade	First	3.46±0.65	3.806	0.023*
	Second	3.27±0.53		
	Third	3.50±0.60		
DH existence	yes	3.60±0.53	2.058	0.045*
	no	3.42±0.62		
Expect Work	Dental clinic	3.29±0.65	1.018	0.398
	General hospital	3.45±0.61		
	Dental hospital	3.43±0.60		
	Public Health centers	3.48±0.65		
	Others	3.51±0.61		
Choice Motive	get a job ease	3.38±0.64	2.627	0.023*
	a job appropriate to aptitude	3.65±0.61		
	special subject	3.64±0.71		
	the results of an exam	3.23±0.47		
	invitation of persons	3.49±0.54		
	information of books and material	3.43±0.46		
Working Period	till marriage	3.44±0.66	0.026	0.975
	continuation	3.43±0.62		
	rework	3.46±0.53		
Foreign Advance an Intention	instant	3.46±0.60	0.208	0.891
	after career	3.42±0.66		
	judge from the existing state	3.44±0.60		
	no	3.33±0.56		

*P < 0.05

Table 6. Reward and Fame intention Work Values by personal Variables

Variables	Values	M±SD	t or F	p
School	A	4.08±0.40	9.230	0.000**
	B	4.19±0.41		
	C	4.27±0.35		
Grade	First	4.12±0.39	14.126	0.000**
	Second	4.08±0.37		
	Third	4.32±0.38		
DH existence	yes	4.22±0.37	0.749	0.454
	no	4.17±0.40		
Expect Work	Dental clinic	4.12±0.46	0.690	0.599
	General hospital	4.21±0.38		
	Dental hospital	4.16±0.37		
	Public Health centers	4.16±0.41		
	Others	4.20±0.40		
Choice Motive	get a job ease	4.15±0.39	1.294	0.265
	a job appropriate to aptitude	4.25±0.39		
	special subject	4.09±0.49		
	the results of an exam	4.11±0.43		
	invitation of persons	4.22±0.37		
	information of books and material	4.27±0.36		
Working Period	till marriage	4.19±0.36	0.103	0.902
	continuation	4.18±0.40		
	rework	4.14±0.27		
Foreign Advance an Intention	instant	4.24±0.41	2.036	0.108
	after career	4.12±0.40		
	judge from the existing state	4.18±0.37		
	no	4.09±0.45		

*P < 0.05 **P < 0.01

차이를 나타냈다. 학년별로 보면 3학년 4.32점, 1학년 4.12점, 2학년 4.08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역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친척 중 치과위생사 유무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는 있는 경우 4.22점, 없는 경우가 4.17점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희망근무처에 있어서는 종합병원 4.21점, 기타 4.20점, 치과병원, 보건소 각각 4.16점, 개인치과 4.12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치위생과를 선택한 동기에 있어서는 '서적 및 홍보자료를 통해' 4.2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적성에 맞는 것 같아' 4.25점, '주변사람의 권유' 4.22점, '취직이 용이해서' 4.15점, '수능성적을 고려해서' 4.11점, '전공의 독특성 때문에' 4.09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졸업 후 취업희망기간에서는 '결혼시까지' 4.19점, '결혼 후에도 계속' 4.18점, '결혼 후 재취업' 4.14점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해외진출 기회에 본인의 의사에 대해서는 즉시가겠다고 한 경우가 4.24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지 않겠다고 한 경우가 4.09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보수와 명성 지향적 직업관은 대체적으로 다른 직업관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는 류¹²⁾의 연구에서 신세대 대학생들의 직업의식은 다소 이기적이며, 개인의 이익과 욕구충족을 중시하고 회사의 발전, 사회에의 기여 보다는 일을 통해 나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사회적 인정이라는 이유를 직업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보고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학교와 학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C학교인 경우, 3학년인 경우가 각각의 직업관 모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 중 3학년인 경우 높게 나타난 이유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시점과 연관되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치위생과를 선택한 동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선택한 동기가 적성에 맞아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 직업관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직업관은 한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정등⁹⁾에 의하면 치과위생사의 직업관에 전공학과, 교수진,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날수록 치과위생사에 대한 직업관 역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것과 같이 학생들의 직업관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되겠지만 특히 교육하는 교육자의 영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치위생과 교육에 있어서 치위생 전문직에 대한 올바른 가치정립 및 직업을 중히 여기는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직업관과 직업의식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체, 즉 목적에 도달하는 과정에 만족하고 또 여기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직업을 가진 후에도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끊임 없이 자기 혁신을 위해 노력한다면, 성공적인 직업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직업관을 알아보기 위해 경기 지역에 위치한 3개 대학 치위생과 학생 4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으며, SPSSWIN 12.0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직업관 유형 중 보수와 명성 지향적 직업관이 4.1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세부적 항목 중에서는 경제적 보상이 4.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세부적 직업관의 유형 중 성취와 능력, 경제적 보상과 지위, 인정과 지위에 있어 특히 높은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 자아실현 지향적 직업관에 있어서는 치위생과 선택동기($P = .042$)가, 기여 지향적 직업관에 있어서는 학교($P = .011$), 학년($P = .023$), 치과위생사 유무($P = .045$), 치위생과 선택동기($P = .023$)가 보수와 명성 지향적 직업관에 있어서는 학교($P = .000$), 학년($P = .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참고문헌

1. 박주신: 대학생의 직업관에 관한 조사연구. 인하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9(1): 107-156, 1998.
2. 신명호: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관과 직업선호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3. 김기홍: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직업가치관의 자세. 학생생활연구 13(1): 1-15, 2002.
4. 조성의: 중, 고생의 직업가치관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5. 양한주: 중학생의 직업 가치관과 직업선호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6. 이선미: 치위생과 신입생들의 직업가치관 유형에 대한 요인분석. 치위생과화학회지 4(2): 55-60, 2004.
7. 신선행: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전공학과에 대한 태도 및 진로방향. 진주보건대학논문집 17(1): 99-111, 1994.
8. 이미옥: 치위생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및 전공에 대한 의식 조사연구. 진주보건대학논문집 16(2): 123-137, 1993.
9. 정재연, 최정이: 치위생과 학생들의 전공교육 및 직업관에 대한 의식 조사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3(1): 131-145, 2000.
10. 조평규: 전문대학 치위생과 학생의 전공교육 관련 경험 및 의식. 진주보건대학논문집 20(1): 117-139, 1997.
11. 안강현: 전문대학 학생들의 직업가치관 유형에 관한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12. 류동현: 신세대 대학생의 직업 선호도 및 인지도에 관한 고찰.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Received September 30, 2005; Accepted December 1, 2005)

